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류승희	소속(학부/과)	기계설계공학과
파견 학기	20년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단기간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그곳의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주위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주로 모든 정보에 관련된 연락이 메일로 오기 때문에 메일 확인을 자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메일에서 알려주는 대로 기한에 맞춰 준비하시면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하시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3개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저는 무비자로 입국 후 독일에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학교에서 시청에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비자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직원께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와 언제 다시 방문할지에 대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슈페어konto(Blocked account)라고 하는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실 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KSK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매달 853유로씩 6개월로 5118유로와 수수료 50유로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이민청 직원에 따라 4, 5개월 금액만 예치하고 만들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6개월분 돈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독일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인터넷 은행도 선택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는 출국 전에 업로드하는 것과는 별개로 독일에서 다시 수강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다시 확실한 수업에 관련 자료를 나눠주니 본인이 독일에서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지 정도 계획을 하고 독일에 도착하신 후 확실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기숙사 근처에 Sontheim 캠퍼스가 있고, 버스타고 20-30분정도 걸리는 위치에 Bildungs 캠퍼스가 있습니다. Bildungs 캠퍼스 근처에는 시청사와 변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부터 Bildungs 캠퍼스까지 걸어가는 길에 공원과 강이 있기 때문에 산책 겸 걸어 다니시기도 좋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편의시설들(마트, 공원, 드렉스토어,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맥주로 유명하지만 하일브론은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라서 주변에 와인밭이 많이 있습니다. 와인

밭에 올라가시면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도시로는 슈투트가르트와 하이델베르크가 있습니다.

하일브론에 laomi 라는 작은 아시안 마트가 있고 슈투트가르트에 큰 체인점인 goaisa 라는 아시안 마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라면, 간장, 김치 같은 식재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는 한국처럼 4계절이 있는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우중충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은 가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한파가 오는 것이 아닌 평범하게 추운 겨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업 시간에 맞춰 ZOOM, Webex와 같은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화상 링크에 접속해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시험은 도시가 락다운이 되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의 경우는 과제, 발표, 비대면 시험 등으로 대체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면 메일로 학교 정보가 전달되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수강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수업을 듣다가 수강을 포기하고 싶으면 더는 수업에 나가지 않고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기간 이후에 시험을 치는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수님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전 추가 비용을 내고 3주간 진행되는 German Intensive course(5etcs)에 참여했는데 이 수업만 예외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이 수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학점도 받을 수 있고 완전 기초반으로 시작되어서 학기 중에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보다 수업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어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저에게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2 (for incoming students), B2

영어 문법, 비즈니스 용어와 영어 발표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문법 시험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Microcontroller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래밍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과 실습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다르셨지만 두 분 모두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실습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1번 시험과 최종 프로그래밍 실습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HMI

EB guid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사람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없고 조를 만들어서 선정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 중간 진행사항 발표와 보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Dynaminc Image Processing

영상 처리에 대한 수업으로 시험이나 과제는 없었고 조별발표 하나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들 중 원하는 파트를 선정합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선정한 파트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촬영이 어려울 경우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몇 개 올려주십니다. 따로 시험이 없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이미지 처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과제를 수행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학생 기숙사 건물은 2개가 있습니다. 31 건물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방이 좀 더 넓은 편이고 세탁실이 건물 내에 있습니다. 27 건물은 방은 좀 더 작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신식건물입니다. 비용은 31이 27보다 더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는 제가 아는 다른 교환학생들 모두 27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무난하게 2인실에 배정된다고 생각되는데 2인실 방의 주방에는 따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챙겨 오셔도 사용할 수 없으십니다.

식비는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외식비용과 직접 만들어 먹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식비를 줄이시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Sontheim 캠퍼스에 있는 멘자에서 밥을 사서 먹는 것도 저렴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세메스터 티켓이라고 하는 1학기(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기간의 주말마다 하일브론 시티투어, 근교 도시 여행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ASta라고 하는 학생회같은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메일을 확인하시고 참여를 원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제가 사용해본 부대시설은 학생식당의 개념인 멘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멘자카드를 보증금 5유로를 가지고 구매한 후 추가로 돈을 충전하여 충전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카드를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에 충전한 돈으로 멘자에서 음식을 구매하거나 기숙사의 세탁실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매하셔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전거만 타고 짧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내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를 끼고 밖으로 나오면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지내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대로 당당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였고, 도착해서 생활해보니 과거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여행을 많이 다니기는 어려웠지만 현지 생활을 즐기기에 문제없었습니다.

습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영어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무섭기도 했지만 서툴더라도 열심히 내뱉어보면서 영어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해하고 배우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며 지내면 저처럼 안전하게 좋은 추억과 친구들을 만들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Sontheim 캠퍼스



시내의 크리스마스 기간 크리스마스 트리

